

# 브라카의 소식들

## Beracah Vally News



제 5 호

주소 | 138-22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본동 314-10 · Tel · FAX | 02)423-2826, 02)554-2319

### 순회전도를 다녀와서



정인남 목사 (전북 이리 임상교회 · 이사)

2001년도가 시작된 지 14일째 되는 주일 오후! 우리는 두 번째 주간의 전도 일정을 위해 목포로 출발하였지만 대설 주의보로 인해 목포지역이 통제가 되었다는 최금호 집사님(목포 지산 부대 1대대장)의 연락을 받고 최집사님이 준비해 주신 광주 31사단 총장대 복지관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다. 내일 일정도 눈 때문에 적지에 목포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소식을 받아 내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후 주님께 맡기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큰 어려움 없이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여 최금호 집사님 내외분을 만날 수 있었다. 공연장소와 잠자리 계획을 세심히 세워놓고 불순한 일기로 인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쁜 군 임무에도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 그리고 물질과 시간을 헌신한 최대대장 내외분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지금도 그 은혜 잊지 못하고 머리숙여 기도를 드릴 때마다 기억이 새롭다. 또한 주님의 아름다운 활동과 복음전파에 전심전력을 쏟고 계신 선교단장 김승석 목사님의 사명 의식에 다시 한 번 놀랐다. 우리들 아니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 같아 송구스런 마음이었다.

선교단원들과 같이 한 주간을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고 고된 훈련과 악조건 속에서 불평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활발하게 일하는 선교단원들이 너무나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웠다. 한 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활동하는 믿음의 단원들을 볼 때 협력하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울 뿐이었다.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었고 감격의 시간들이었다. 앞으로 갈보리선교회가 힘있게 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독지가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날씨가 고르지 못한 한 주간이었지만 순간순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갈보리선교회 위애와 이 일을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갈보리선교단 지체들에게

김신광 (31사단 96연대 1대대 · 병장)

반가워요!! 이렇게 글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워요.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그리운 걸 보면 우리의 만남이 참으로 소중한 만남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만남이 얼마나 고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마음 속 깊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얼마 전 누가 저에게 갈보리선교단의 지체들을 보는 느낌이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물론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저의 모습이 부족해서 감히 무엇이든 얘기 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아름답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여러분들과 동행하게 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 드려요. 물론 지체들의 몸 동작 하나 하나와 찬양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로움을 맛 볼 수 있었던 것도 감사 드렸어요.

문득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 지체들이 생각이 나네요. 여러 장비들을 나르고 했던 기억도 나구요. 저도 앞으로 아니 지금의 모습에서 부터 걸어 나가야 할 전도자의 모습, 나중 영광을 위한 발걸음들, 그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 같아요. 저보다 먼저 길을 걷는 여러분들 앞에 주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메마른 광야에 한 줄기의 물이 솟아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열심히 기도할게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다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세요!

이번 글은 여기서 줄일게요! "Good Bye"~~



## 갈보리선교회 특별전도팀

국내외의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본 회 회원교회와 후원회원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사랑과 격려로 아래와 같이 제17차, 제18차, 제19차 국내순회전도 및 제12차 해외순회전도를 크신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기에 먼저 언제나 동일하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집회들을 마련해 주신 모든 교회와 기관 그리고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보고를 드립니다.

### 제17차 국내 순회전도보고

- 가. 일시/ 1999년 8월 4일(수)부터 8월 20일(금)까지  
 나. 대상지역/ 울산, 제주도 지역  
 다. 대상기관/ 낮시간-군부대, 특수기관 밤시간-지역교회 및 군교회  
 라. 특별전도팀 구성/  
 1. 총지휘/ 김승석목사(단장, 선교회장, 서울 충만교회)  
 2. 메세지 및 지도위원/ 박신봉목사(이사장, 울산 태화교회) 외 3명  
 3. 단원/ 주정림(서기, 서울 증가성결교회) 외 13명  
 마. 집회일정/

	1주간	2주간	3주간
주		8/8 35사단127연대7765부대 울산동광교회(김형백목사)	8/15 신제주제일교회(우종하목사) 제주서광교회(강석조목사)
월		8/9 공군제8981부대 미사일공군부대 울산우리들교회(이창희목사)	8/16 제주해병92부대 제주봉개교회(김관진목사)
화		8/10 울산웅촌교회(신재철목사)	8/17 제주제도교도소(송귀춘소장) 제주서문교회(김기욱목사)
수		8/11 울산온광교회(최신철목사)	8/18 제주제남보육원(이상준원장) 서귀포동원교회(이수철목사)
목	8/4 35사단충경교회 (최부식목사)	8/12 제주도로 이동	
금	8/5 39사단117연대3중대(이영구중령) 39사단117연대3대대(이남우 인사과장)	8/13 제주홍익보육원(김종철원장) 제주모슬포교회(이정훈목사)	
토	8/6 69사단196연대3335부대 울산반석교회(김재관목사)	8/14 제주남제주양로원(김성신목사) 제주서호제일교회(임진성목사)	

### 제12차 해외 순회전도보고

- 가. 일시/ 2000년 8월 2일(수)부터 19일(토)까지  
 나. 대상지역/ 북방국 일원  
 다. 대상기관/ 장애인 사역지와 일반교회  
 라. 특별전도팀 구성/  
 1. 총지휘/ 김승석 목사(단장, 선교회장, 서울 충만교회)  
 2. 메세지 및 지도위원/ 이대수 목사(메세지위원, 울산 충현교회) 외 2명  
 3. 단원/ 박지연(간사, 서울 충만교회) 외 12명  
 마. 집회일정/  
 현지 사정상 구체적으로 기재 할 수 없음

### 표지명 소개

여호사밧왕이 이방동맹군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송하며 나갔다. 하나님은 복병을 보내 적군들끼리 치게하여 진멸케 하셨다. 유다 군대는 한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였는데 그곳이 브라가 골짜기다. (대하20장, 브라가는 "송축"의 뜻)  
 하나님께서는 갈보리선교회도 각 팀들이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와 춤과 드라마로 미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국내외의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복된 길로 이끌게 하시므로 그 모든 소식을 한 데 모아 널리 알리면서 하나님께 더 큰 송축을 드리고자 이 소식지를 (브라가의 소식들)(Bracah Valley News)로 정하게 되었다.

### 제 18 차 국내 순회전도보고

- 가. 일시/ 2000년 1월 9일(주)부터 21일(금)까지  
 나. 대상지역/ 전라남, 북도 지역  
 다. 대상기관/ 낮시간-군부대, 특수기관 밤시간-지역교회  
 라. 특별전도팀 구성/  
 1. 총지휘/ 김승석 목사(단장, 선교회장, 서울 충만교회)  
 2. 메세지 및 지도위원/ 김중남 목사(이사, 태안 파도교회) 외 3명  
 3. 단원/ 김철우(간사, 서울 충만교회) 외 14명  
 마. 집회일정/

	1주간	2주간
주	1/9 장흥중앙교회(백영태목사)	1/16 전북원평교회(유희창목사)
월	1/10 전남공생재활원(최순임원장) 진도지산중앙교회(서남진목사)	1/17 전북보성원(조순화원장) 군산영생교회(이대수목사)
화	1/11 목포장애인요양원(정영걸원장) 전남현화교회(박광우목사)	1/18 전북월성경로당 전북용상교회(류영호목사)
수	1/12 31사단1대대(선성일목사) 전남송지중앙교회(정상목사)	1/19 전북상광교회(한금수목사)
목	1/13 31사단93연대1대대(임문성목사) 전남용산교회(김병영목사)	1/20 전북삼성노인정 전북감곡반성교회(음두진목사)
금	1/14 전남계산요양원(나중학원장) 무안해운교회(김두식목사)	1/21 전북낙양교회(이삼규목사)
토	1/15 31사단96연대1대대+매화교회 (양실희목사)	

### 제19차 국내 순회전도보고

- 가. 일시/ 2001년 1월7일(주)부터 1월 19일(금)까지  
 나. 대상지역/ 대구 및 경북지역, 목포 및 전남지역  
 다. 대상기관/ 낮시간-군부대, 특수기관 밤시간-지역교회 및 군교회  
 라. 특별전도팀 구성/  
 1. 총지휘/ 김승석 목사(단장, 선교회장, 서울충만교회)  
 2. 메세지 및 지도위원/ 정아남 목사(이사, 이리임상교회) 외3명  
 3. 단원/ 주정림(서기, 서울 증가성결교회) 외 14명  
 마. 집회일정/

	1주간	2주간
월	1/8 대구신망애원(박득례원장) 대구복음양로원(박성욱원장)	1/15 31사단96연대1대대 실로암교회(하현철목사)
화	1/9 대구애활원(이상구원장) 경북안강영락교회(이용우목사)	1/16 31사단93연대5대대 소망교회(고한석대령) 목포소망장애인(정종록목사)
수	1/10 대구성림원(임영호원장) 대구성서중부교회(이동은목사)	1/17 목포공생재활원(윤향미원장) 목포복고동교회(김 정목사)
목	1/11 대구성로원(김동성목사) 대구아멘교회(김명동목사)	1/18 무안계명수련원(임명란원장) 목포해군교회(이동호목사)
금	1/12 50사단121연대2대대 평화교회(박영대목사) 50사단121연대 임마누엘교회(신진섭목사)	1/19 영암구림교회(강춘석목사) 목포임성교회(김주현목사)

## 내가 만난 갈보리선교단 집회



### 작은 섬에 찾아 온 복음

OOO (31사단 96연대 1대대)

이 작은 섬의 한 가운데 작은 마을, 작은 교회에서 얼마 되지 않는 인원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기 위해 찾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교회는 몇 번 가보았습니다. 그 동안 교회에서 집회를 몇 번 가서 보았지만 오늘처럼 신선하고 감동적인 집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여주신 율동과 드라마, 들려주신 말씀과 찬양 모두가 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오라고 했을 때 항상 그랬듯이 졸립지만 한 집회 인 줄 알았었습니다. 하지만 집회가 진행되어 갈수록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의미가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갈보리선교단이 하시는 일 또한 정말 의미있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같은 장병이 근무하는 외진 섬과 같은 군부대에 많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집회를 준비하시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회가 진행될수록 갈보리선교단의 훈련되고 기다겨진 노력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열심히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 얼마남지 않은 인생들을 위해

배종국 (대구 성로원)

먼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가와 성극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원에서 생활한지 4년이 되었지만 오늘 같이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없었고 또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노인 분들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무대가 좁고 작았지만 선교단 여러분들의 정성과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연주로 인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종종 마련하여 주셔서 얼마 남지않은 인생을 살고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보리선교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단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제야 찾은 나의 생명줄

OOO (대구 복음양로원)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무식한 사람이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이제부터는 죄를 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와 지옥에 대한 목사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앞서지만,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산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 너무도 감사하기만 합니다. 이곳에 와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나의 생명줄을 찾았으니 지금부터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나같은 죄인도

김계식 (대구 성서중부교회 · 고등부)

차디찬 바람이 넘나드는 겨울의 아늑한 수요일밤 저녁예배에 갈보리선교단이 온다는 소식에 모처럼 저녁예배에 참석했다. 교회 본당 문을 여는 순간 주님의 자녀들이 찬양에 맞추어 워십 댄스를 하고 있었다.

나의 얼굴은 기쁨으로 환해지기 시작했다. 이 땅에 주님을 알리러 온 천사들인가 하는 착각까지 들었다. 힘겨운 학교생활에 지친 나의 몸과 마음이 이 순간만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다. 이 시간 만큼은 오직 주님께 바쳐라 다짐했다. 목사님과 단원들의 찬양소리에 맞춰 나의 입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이렇게 찬양에 젖어있던 시간도 어느덧 다 가고 목사님의 말씀이 있으신 후에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이 드라마는 나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내가 이미 알고있던 내용이었지만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무언극으로 진행되는 드라마에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표현하는 손짓 하나 하나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게 하였다. 나도 앞에 나가서 나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드라마의 절정 부분은

# CALVARY FRUITS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는 장면이었다. 이 때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소리가 지금까지 죄만 지었던 나를 채찍질하는 것 같았다. 드라마 후에 목사님의 메시지가 있었다. 목사님의 말씀 중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성도를 책망하는 말씀이 있었다. 꼭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 낯을 들 수가 없었다.

메세지의 주 포인트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정말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확신에 찬 목사님의 말씀에 그런 의심이 사라져버렸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며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 중에 어느 한곳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천국 문에 들어 갈 수가 없다. 깨끗이 나의 죄를 사함 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전파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것이었다. 집회 끝 부분에 주님을 위한 나의 찬양과 주님을 찬양하는 박수소리와 함께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땅 끝까지 나를 알리라"라고. 이 말씀대로 갈보리선교단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나가서 주님의 사역에 힘쓰고 있다. 그 곳마다 주님의 축복이 있으며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도 주님께서 그런 복된 일꾼으로 쓰주시길 바란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 나를 치는 듯한 생생한 채찍소리

장현성(미 2사단 카투스부대 지원여단 본부중대 · 병장)

한 달에 한 번 씩 있는 신병예배이지만 그 날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의 신병예배였다. 단원이 모두 익숙한 동작으로 짐을 내리고 장치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훈련이 있었겠다 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다.

신병예배는 미 2사단에 들어오는 전입 카투사를 위한 예배로서 보충대에서 드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이다.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든 생각이 있었다면 신병예배의 포커스가 복음의 전파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대부분의 신병들이 앞으로 자신이 배치받을 자대와 또 고참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다. 그들의 그런 마음에 그들에게 유용한 앞으로의 군생활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나 요령을 주는 것보다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란 생각을 갈보리선교단의 예배를 보면서 하게 되었다.

전체적인 구성이 창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사역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중간에 포함된 찬양과 율동 그리고 드라마는 복음에 알기쉽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가시면서 채찍을 맞으시는 소리는 마치 나의 몸을 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예수님이 십자가고난을 당하시면서 감당하신 엄청난 죄의 한 부분이 내 자식이란 생각에 감사한 마음과 죄송스런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신병예배를 준비하다가 정신없이 예배준비를 하면서 혹시 이것이 예배가 아닌 공연으로 끝나지는 않을까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목사님의 마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뜨거운 말씀은 그런 염려들을 지워버리기에 충분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복음의 전파를 위해 땀흘리시고 수고하시는 갈보리선교단을 보면서 현재 주변의 환경에 익숙해져 있기만 하고 그것을 깨고 나와 힘

찬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무미 건조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아마도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의무이자 권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는 우리의 생명력의 근원이 되는 것 같다.

갈보리선교단이 뿌리고 간 복음의 씨앗을 이곳 신우회에서 열심히 가꾸어 아꼈다는 결심을 하게 한 그런 예배였다. 끝으로, 가장 가치있는 일에 헌신하시고 순종하시는 갈보리선교단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 드린다.

## 천사들의 향연을 보고

명승철 (국군지휘통신사령부 50대대 3중대 · 상병)

모든 행정병이 그렇듯 2000년의 마지막 날이자 일요일 인 그 날에도 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다. 연일 계속되는 야근에 지칠대로 지쳐있던 터라 저녁에 교회를 가지않고 일을 처리한 다음 일찍 잠자리에 들어 아꼈다 마음먹고 있었다.

서류데미들과 맞붙어 싸우기를 몇 시간... 거의 KO되기 직전에 한 잔의 차로 재충전을 하고자 막사 밖으로 나왔다. 기지개를 켜다 문득 보이는 십자가. "맞다. 오늘 갈보리선교단에서 찬양예배 드린다고 했지..." 아마 그 때 내가 내린 결정은 대학 진학 때 학과선택 만큼이나 어려웠으리라. 야근을 각오하고 밀린 업무를 뒤로한 채 교회로 향한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날 그 곳으로 인도하신 것 일 것이다.

홍보가 덜 된 탓인지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다. 곧 사람들이 다 모이고 예배가 시작되었다. 군에 와서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춤과 노래와 공연은 내겐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다. 정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는 것 같았다. 특히 드라마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는 장면은 마치 내가 채찍에 맞는 것처럼 마음이 아팠다.

모든 차례가 끝나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을 때 난 내 마음속에 믿음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했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비록 또 야근을 해야한다는 부담감이 나를 잠시 어둡게 하기는 했지만 이 또한 보다 나은 나를 만드시기 위해 주께서 예비하신 것이라 확신하고 나니 교회를 나서는 내 발걸음은 진실로 가벼웠다.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나지 않고도 주를 위한 천사들의 향연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갈보리선교단 여러분께 마음 모아 감사드리는 바이다.



## 내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정희원 (전북 군산영생교회 · 성도)

오늘 갈보리선교단을 통해 주님의 피 흘리신 사랑에 대해 다시금 상기하며 나 자신의 믿음생활을 점검하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 만도 감사한데 특별한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나도 감사할 수 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단원들의 얼굴과 몸짓에서의 기쁨을 보며 기도와 말씀훈련이 있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 결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큰 사명을 복으로 받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선교단 여러분을 통해 매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칫 주님의 피 흘리심을 잊고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쉽게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쉽게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의 피 흘리심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싶습니다. 주님과 첫 만남을 생각하면서 집회시간 동안 제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생각했습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갈보리선교단이 진정으로 주님을 올바르게, 은혜가 충만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자의 손을 진심으로 잡아주고 마음의 병든을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써 치유할 수 있는 선교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김주리 (전북 상광교회 · 고등부)

참으로 오랜만에 가지는 은혜의 집회였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노력은 해보았지만 나의 부질없는 건고한 마음의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줄 몰랐습니다.

오늘 드라마(무언극)를 보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장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장면이 생생하게 재현되어서 나도 모르게 서글퍼지고 말았습니다. 하찮은 나를 위해...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그렇게 피 흘리시며 구원을 주셨는데 그 큰 은혜를 받고도 나는 대체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구주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미소리, 한 마음 한 마음이, 그 무언극의 손짓 하나 하나가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야 말았습니다. 다 주님의 사랑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갈보리선교단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중국 순회전도 감상모음

## 직접 눈으로 보라

박○○ (안내&통역담당자 · ○○교회)

내 이름은 박○○. 중국 ○○사람이며 현지에서 선교사임을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1989년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중국에 드나드는 많은 찬양팀을 만나보았고 안내도 많이 했었다. 따라서 처음 갈보리 찬양선교팀의 중국방문 소식을 접했을 때 별 다른 느낌이 없었고 오히려 보름의 긴 여정 때문에 부담을 느꼈다.

서울에서 8월 2일 출발해서 중국 ○○에 8월 3일 도착했다. 그들이 부두를 나오는 16시까지 꽤 초조했다. "어떤 팀일까?" 나름대로 상상도 해보았다. 그들을 만나는 순간 나는 모든 번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19시간의 긴 여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밝은 모습이었으며 불평의 모습들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을 출발해서 버스로 20시간씩 달리는 힘든 상황에도 적응을 잘하는 모습들, 입맛에 맞지않는 중국음식도 잘 소화해 내고 손발이 척척 맞아 돌아가며 그 많은 기자재를 차에서 내리고 올리고, 서로가 위해주며 서로가 앞 다투어 힘든 일을 찾아하고, 단장님의 말씀과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예쁜 모습들에서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아 지금도 생각하면 눈시울이 젖어든다.

『예수님의 일생』이라는 드라마... 뭐라 표현 할 단어가 없다. "대단하다", "멋있다", "아름답다", "감동적이다" 등은 형용사 일 뿐이다. 직접 눈으로 보라!! 내 10년 신앙생활 중에 잠들었던 신앙을 깨워주고 채찍질 해 준 드라마였으며 앞으로의 방향을 확신시켜준 드라마였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눈으로 보았고 그 고통이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달으니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정말 내 몸으로 예수님의 매를 막고 싶었고 채찍질하는 두 명의 병사를 때려주고 싶었다. 눈물로 세수를 했지만 부활의 기쁜 메시지를 담은 마지막 장면을 보고 다시 밝은 모습으로 통역을 하기 위해 단 위에 올라 갈 수 있었다.

강단에서 내려다 보니 나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눈망울들이 젖어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목사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 윈지 희미하던 영혼들이 확신을 얻었고 나한테 와서 통역을 잘 해 주어서 고맙다며 내 손을 꼭 잡을 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다시 한 번 나의 사명감을 깨달았으며 신앙도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었다. 스스로 잘난 체 하던 나에게 사랑의 채찍을 안겨준 갈보리팀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린다. 사랑의 갈보리!! 더 멋진 앞날을 기대하며 더욱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란다. 보잘 것 없는 나이지만 나의 기도가 갈보리팀에 힘이 되도록 매일 기도 할 것이다. 승리의 갈보리 파이팅!

# CALVARY FRUITS

중국 순회 전도감! 모음



## 내 일생에 울릴 집회

허OO (중국 OO시 OO교회)

오늘 갈보리선교단에서 OO교회에 오셔서 찬양 및 드라마, 그리고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저 뿐만 아니라 모두가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그린 드라마에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때, 또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고 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원들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는 찬양은 제 일생동안 컷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열심히 찬양하는 단원들의 얼굴에서 흐르는 땀방울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OO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또한 사명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더욱 더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 가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수고하신 목사님과 단원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 변화의 권능이 있는 드라마

리OO (중국 OO교회, 집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히 쓰시는 목사님과 갈보리선교단을 보내 주셔서 은혜받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번 본 적 없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만났으나 마치 친형제들의 만남 같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이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의 한 띠로 묶어 주셨고 성령의 한 줄로 이어주셨기에 이와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울동으로 영광올리는 줄 믿습니다."

선교단의 자매님들이 천사와 같이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으로 울동 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지 못하고 저희들만 보게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감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불쌍한 인생들은 교회는 늙은이들, 병든 자, 부족한 자들만 모이는 곳이라며 비방하지만 이 시간 선교단의 드라마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의 비웃는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드라마를 볼 때, 만 번 죽어 마땅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세상에 휩싸여 죄만 짓는 저의 모습이 부끄럽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하신 줄 믿으며 더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먼 이국 땅에서의 고생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비오는 이 날에도 이 산골에 있는 OO교회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찬양과 울동으로 부족한 저희 영혼들에게 성령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믿음과 기쁨을 더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아 매우 아쉬움이 남지만 우리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축히 젖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우리들도 갈보리선교단을 본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전파 할 것을 마음 깊이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자녀들과 새로 나온 아들이 오늘 이 시간 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갈보리선교단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받은 것을 여저 글로 다 쓸 수 있겠습니까? 갈보리선교단이 하나님의 은총 받으시고 나아가시는 발걸음마다 지켜주시고 모든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서없고 보잘 것 없는 글이지만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또 만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기도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리OO (중국 OO교회)

사랑하는 갈보리선교회의 목사님과 단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땅 끝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먼지와 밤을 섞어 드시면서 목이 터지도록 세계 각지로 뛰어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사역을 위하여 그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감사와 문안을 드립니다. 저는 OO시

# CALVARY FRUITS

교회 찬양대 부대장직을 맡고 있는 너무나도 부족한 리○○자매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갈보리선교회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머나먼 한국에서 많은 음악기구들을 가지고 오신 수고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동안 그저 앉아서 편하게 주님을 찬양드리고 있었으면서 마음속으로 피로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저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특별히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자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훌륭히 감당하기 위해 주님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늘나라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드라마를 통하여 주님의 형상따라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보려는 마음이 끌어오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들은 여러분들 처럼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주시기를 바라며 저희들도 훌륭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 진도 집회 기념! 대교원모임



공연하는 내내 동그란 눈을 반짝거리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과 끊이지 않는 박수 소리...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난 선교회의 공연은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기에 충분했다. 한마디로 정말 뜻깊은 공연이었다.

(나주 계산양로원 생활재활교사 김잔디)

예수님께서 믿지않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병든 자, 앓은뱅이, 장님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보고서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셨을 때 군중들이 환영하는 모습을 비록 몇 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그 기쁨으로 표현했지만 지금 저는 그 때의 수 천명, 수 만명이 환영했을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96연대 1세대 상병 오동용)

드라마에서 보여주었던 것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니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게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다.

(전북 보성원 이미란)

갈보리선교단이 준비한 "예수님의 일생"이 찬양과 몸짓을 통해 그려지는 것을 보며 가슴 속에 평한 울림을 느꼈다. 특히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는 모습과 피투성이 되어 고통에 찬 예수님, 그 채찍소리, 망치소리에 성경책으로만 읽고 말씀으로만 듣던 것과는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동, 이 순간이 가슴만 울리는 시간이 아닌 앞으로 나의 삶에 큰 변화가 되는 밑거름이 되어질 것이다.

(전북 원평교회 청년회원 황민옥)

공연을 시작하기 전 작은 공간에서 장애를 가진 우리 식구들이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하고 염려했던 저의 생각은 공연을 보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 몇 시간도 가만히 있지 않으려 하는 우리 가족들이 찬양과 율동에 맞추어 박수치며 "아멘" 하는 것을 보며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어서 몸부림치는 우리 아이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스러운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갈보리선교단을 위해 늘 기도 드리겠습니다.

(목포 장애인요양원 생활재활교사 김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또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번 위문예배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한 가장 첫걸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교단원들의 드라마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단편들을 기능할 수 있었고 목사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7CO 2PT 병장 김태훈)

지금까지 미지근했던 우리 광활교회에 갈보리선교단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체험하게 해주시고 새로이 신앙을 돌아 볼 기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지근한 저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갖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광활교회 김정호 장로)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일종의 종교활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집회를 보고 듣고 느끼게 많습니다. 집회를 참석 중에 '일종의 군부대 위문 공연이겠지' 생각했는데 집회를 마친 후에는 저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한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 저 자신을 좀 더 고쳐 가다듬고 작게는 사소한 것부터, 크게는 군인으로서의 복무에까지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전북 무안동대 상병 조기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부분과 알고는 있었지만 습관이 되어서 무감각했던 부분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교회 청년회 회원)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으며 가장 기본적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죄사함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지난 세월 동안의 안일한 모습이 예수님의 절규하신 모습을 기억하며 닦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감동을 영원히 기억하며 갈보리선교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광주 평안교회 성도)

항상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말씀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던 원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가슴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주 계산양로원 생활재활교사 정은진)

# Calvary Story

## 선교단원 순회전도 감사담

### 준비된 영혼, 준비된 만남

장정미 (대전 행복한 성결교회, 단원)

"하나님께 기쁨되기 원합니다."라고 집회 시간마다 간절히 기도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서인지 더욱 더 간절히 기도가 되었다. 아직도 나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다. 먼저 말씀 가운데 온전치 못했고 기도로 무장되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번 갈보리순회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다. 가는 곳마다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만남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훈련의 힘이 큼을 깨닫게 되었다. 2주 동안 (짧고도 긴 시간) 순회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갈보리선교단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을 많이 느꼈다. 단원들 한 명 한 명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다. 세상에서 볼 때에는 보잘 것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함을 드린다.

또한 최금호 집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돌보아주셔서 갈보리가 많이 피곤하지 않았고 식사와 간식 등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전도 집회를 할 때에도 큰 힘이 되었다. 최금호 집사님을 통해 섬김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고 도전이 되었다. 세심함이 많이 느껴졌고 이런 관심 가운데에서도 큰 감동을 받았다. 대대장이라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 겸손함을 배웠다. 기도의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집회에는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뿌린 씨앗을 놓고 다시금 기도해야함을 실천하고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힘써야겠다. 이번 순회전도를 마치며 다시금 되돌아보면 부족한 것도 너무 많아서 죄송함도 많았고 너무도 아쉬웠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시기에 훈련 가운데 단련하심을 믿고 감사드린다. 이번 순회집회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 눈발을 걸으며

김정은 (서울 충만교회 · 위습댄싱 간사)



오늘은 오전 집회가 없어서 저녁에 집회가 있는 상광교회로 미리 가서 오후부터 그 교회의 집사님, 장로님과 함께 축호 전도를 할 계획이다. 그 곳의 넓고 넓은 대지 위에는 하얗게 눈이 쌓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 상광교회가 너무나 멋있게 우뚝 솟아 있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가운데 지역을 나누고 조를 짜서 축호전도를 나갔다. 우리 조는 띄엄띄엄있는 집집을 걸어서 이동하였다. 발을 가로질러 다니며 넓은 지역을 집집마다 방문했는데 이곳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과 너무나 다르게 모두들 기쁘게 문을 열어주었고 맞아주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보니 상광교회 성도님들이 그동안 열심히 전도하신 것 같았다. 평

장히 추운 날씨 속을 걸어나며 전도하다보니 손과 발이 꽁꽁 얼어붙고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다. 웬지 조금 숙연해지는 기분이었다. 전도자의 역경을 조금, 아주 조금 경험한 듯 말이다.

전도를 끝내고 드디어 시간이 다가와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곳곳에 우리가 낮에 만났던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갑절 더 큰 기쁨을 얻었다.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빈자리가 없었고 자리가 없어 바닥에 앉아계신 분들도 보였다. 모두가 기쁨의 큰 천국 잔치를 경험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밝게 변하는 얼굴들, 진지한 모습들... 집회가 마쳐가면서 우리 모두가 한가족이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밖을 보니 낮에 휘날리던 눈은 이제 함박눈이 되어 펄펄 내리고 있었다. 웬지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은 평온함을 느꼈다. 지치고, 피곤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하얀 눈을 내려주셔서 마음의 때를 씻어주시는 것 같았다. 눈을 감상하던 우리 단원들은 잠깐동안 눈싸움을 하며 동심으로 돌아가 크게 웃고 즐거움을 나누었다. 큰 승리를 기뻐하는 듯 했다.

###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들



김현철(서울 충만교회, 기자재 간사)

갈보리선교회 특별전도팀 단원을 한지도 6년이 겨만 되어가고 있다. 이번 순회전도 이전의 나라들은 선진국들이었기에 국내순회전도 보다는 오히려 수월했다. 그러나 이번 순회전도는 선진국이 아닌 우리 나라보다 환경이 나쁜 나라였기에 중국에 오기 전부터 사전에 많은 준비와 각오를 하고 임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22시간의 배 여행과 24시간의 차 여행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었다. 또 음식과 물이 맞지 않아서 배탈로 여러 날을 고생하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집생각이 나곤 하였다. 한국에선 그 동안 어디서든 경험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이번 순회전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다.

빠진 버스를 단원들이 온몸을 버려가며 밀기도 하고 길이 나쁘거나 길이 막혀서 긴 시간을 멈춘 채 더위와 싸운 적도 있었다. 또 전기시설이 미비한 곳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 적도 있었다. 맨 처음에는 모두들 당황하고 어찌할 줄을 몰라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집회를 하면 할수록 잘 적응해 가게 되었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조선족들에게 한국말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한족들이 걱정이 되었다. 아무리 우리가 긴 시간 고생하며 중국말로 노래가사를 외웠지만 "어찌 100%완벽하게 전달이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 또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역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중국인들은 우리의 찬양에 매우 기뻐하였고 때로는 박수로 때로는 손을 들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너무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장면들이 계속 터져 나왔다.



# Calvary Story

또 좋은 통역관을 붙여주셔서 말씀을 정확하게 잘 전할 수가 있었다. 결신 기도시간에는 모두 진실되게 결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순간순간 사단의 방해로 전기가 나가 집회시간이 연장되기도 하였지만 중국사람들은 지루해 하기는커녕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려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그들의 모습이 참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더욱 더 힘을 낼 수가 있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또 자유롭게 한국처럼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정말로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느끼게 되었다.

나는 자유롭게 얼마든지 교회를 다니고 전도를 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축복으로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편히 놓고 즐기려고 했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게 되었다. 이번 중국 순회전도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또 얼마나 행복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이번 순회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곳 중국 사람들보다 많이 받은 만큼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최대한 은혜를 사용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야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에게 이런 큰 깨달음을 이번 순회전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우리들

윤정화 (서울 충만교회, 회계)



제12차 해외순회전도가 드디어 마치게 되었다. 먼저 아무 탈없이 무사히 모든 일정을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걱정하였다. 지난 94년 중국순회전도 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 중에 하나인 곳, 우리와 같이 전도를 하면 잡혀가고 쫓겨나가게 되는 곳, 제대로 씻을 수가 없어서 휴게소나 주유소 등에서 세면을 하고 화장실에는 오물이 넘쳐 흐

르는 곳, 영.육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곳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더 강력하게 부르짖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갈 중국 교회들과 중국 땅에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을 향해 예수이름으로 대적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중국을 향해 배에 올랐다. 우리는 배 여행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 지난 번에는 배가 심하게 흔들려 목사님들까지도 멀미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배가 멈춰있는 건지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움직여서 준비해 온 멀미약을 쓰지않게 되었다. 그리고 아주 더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우리의 기도대로 전도하기에 적당한 날씨를 주셨다. 안내해 주신 분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도착하기 전까지 무척 더웠다고 했다. 우린 "역시 하나님께서" 하며 감사를 드렸다. 또한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을 했었다. 먼 거리 여행으로 인해 차 안에서 먹을 미숫가루와 영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갔다. 하지만 돌아올 때 거의 대부분 그대로 가지고 올 정도로 대접을 잘 받았다. 이런 여려가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

이번 순회전도때도 역시 많은 것을 깨달았다. 첫 번째로 앞의 감사의 내용들을 통해 역시 기도만큼 된다는 것을 알았다. 지난 번 선배단원들보다 이번 에 간 우리가 여러모로 부족 했었다. 신앙도 보잘 것 없었고 나이도 어렸으며 단원이 된지 1년밖에 안된 단원들이 여럿이었다. 그럼에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다. 특별수련회를 통해 대적기도라는 것을 배워 중국 땅의 마귀들을 대항하여 중점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다. 서로의 문제를 위해 기도했으며 개인의 문제를 위해 기도했다. 그래서 크게 실수하는 단원들 없이, 집회를 못한다거나 추방당하는 일 없이 다 마칠 수가 있었다.

"기도만큼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난 아직도 개인적으로 기도의 승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 갈보리가 모여서 부르짖는 만큼 내 문제를 위해 부르짖어서 해결 받아야겠다.

두 번째로는 훈련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계속되는 장거리 여행, 이어지는 집회들로 인해 지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밝게 임할 수가 있었다. 안내 해 주시는 분이 놀랄 정도로, 칭찬할 정도로 말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었다. 단장 목사님의 강한 훈련과 교육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정도가 되었다. 훈련받을 때는 고달픈 만큼 작은 것까지도 고쳐나 가야 했다. 그런 세심한 훈련 덕분에 이렇게 밝게 끝맺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남아있다. 인격적으로 부족하기에 행동과 말로 실수하는 것들이 있었다. 이제 더 열심히 훈련받아 미비한 것까지 고침받아야겠다. 또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도 철저하게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겠다.

세 번째로는 아직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이 많다는 것이다. 전도를 다니면서 우리의 집회를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왜 이리 늦게 왔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들었다. 달게 받아들이는 영혼,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는 갈급한 눈빛을 보며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많이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야 할 곳은 많은데 갈 일 군들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 또 선교사님께서 보여주신 비디오를 보면서 언어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저런 곳에도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곳에도 영혼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기도제목이 생겼다. 방언의 은사를 받기 원한다. 흔히 말하는 천국방언이 아닌 각 나라 방언을 받아서 어디를 가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네 번째로 "나 자신 그리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타성에 빠진 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곳 중국에서 한국 목사님께서 설교만 하셔도 잡혀가고 그 교회 지도자가 해를 입고 심하면 그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전문전도집회를 한다는 것은 목숨걸고 하는 것이다. 우리야 추방당하면 끝

# Calvary Story

이지만 이 곳에 계신 분들은 여러 해를 입으실 수 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3 번이나 모인 곳도 있었다. 자동차 고장으로 집회시간이 세 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 어떤 분들은 집회를 보기위해 자전거를 타고 2~3시간을 오신 분도 있었다. 또 우린 기자재설치 관계로 1~2 시간 먼저 도착하는데 우리보다 먼저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셨다. 또 어떤 분은 집회가 끝나고 내 손을 잡으며 왜 이리 빨리 끝났냐며 또 언제 오냐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셨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차를 타고 떠날 때 또 오라며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드는 분도 계셨다.

그런데 난 이 분들에 비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부족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도 부족했다. 이런 내가 그 영혼들 앞에 서다니...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다. 이제 늘 하나님께 대해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소유해야겠다. 이 중국 영혼들이 간절하기에 그 어느 때, 어느 집회 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했음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나도 간절함을 가져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겠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순회전도 기간 중 우리의 차를 운전해 주신 운전기사와 그 아내이다. 이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었다. 우리가 한족교회에 갔을 때 운전기사분이 집회를 보고 은혜를 받아 처음 우리를 만났을 땐 어색해 하고 그저 운전만 하셨는데 나중에는 우리의 기자재를 같이 날라주셨다. 또 너무나 좋다며 부인에게 연락하셨고 급한 마음에 그 부인은 서울과 부산거리를 당장에 달려오셔서 복음을 전해 들으셨고 우리의 집회를 보며 어린이 처럼 즐거워 하고 신기해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집회 때 했던 찬양을 흥얼거리며 우리에게 찬양을 가르쳐 달라고 하셨다. 또 수고한다며 아이스크림, 수박 등을 도리어 우리에게 대접해 주셨고 통역해 주시는 분께 한국말을 배워 집회가 끝나고 차에 타는 우리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하며 격려해 주셨다. 이 분들 말고도 많은 얼굴들이 떠오른다.

어떤 순회전도 때보다 내 마음이 뜨거웠던 순회전도였다. 정말 다시 만나보고 싶고 다시 와서 전도하고 싶다. 중국 순회전도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받길 기도한다.

## 나의 부족함을 깨달은 중국순회전도

정신종 (이리임상교회, 단원)



"중국 순회전도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꽤 많은 짐을 가지고 교회를 나선 일과 시끌벅적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배에 탄 일도 있었고 운전기사 아저씨들과 박○○자매님과 만남도 있었습니다. 울퉁불퉁한 도로와 물과 진흙 투성이의 길을 건너기 위해 모두 내려 차



를 밀었던 일과 김선교사님과 아름다운 만남 그리고 수많은 교회 집회들까지도 전부 영화 한 편을 찍을 수 있을 만한 여러가지 일들이었습니다.

그 하나 하나의 사건들 가운데에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며칠 전에 태풍이 올라와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당일에는 바람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습니다. 중국 도착과 동시에 신실하신 박○○자매님을 만날 수 있었

습니다.

착하신 운전기사 아저씨와의 만남, 출사한 지 얼마 안 된 깨끗한 버스, 김선교사님의 집에서 머문 일과 가는 곳 마다 우리를 향한 극진한 대접은 종이 한 장을 채우고도 남을 만 한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대원들 중 한 명인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초보신자에 불과했던 믿음이 이러한 체험과 말씀, 훈련을 통해 많이 성장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대원들과 중국 현지인들의 믿음을 보면서 너무나도 한심한 나였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단 믿음뿐 만이 아니라 여러 생활습관까지도 난 너무나 한심했던 것을 느꼈습니다. 김선교사님의 인도로 장애인교회를 둘러보고 집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의 집회에 임하는 자세는 너무나도 감동스러웠습니다. 집중해서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습들과 그 사람들 중에 맹인인 듯 보이는 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한 몸을 주신 것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시청각자료를 통해 장애인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율동드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분들에 비하면 부족할 것이 없는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는가?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나도 장애인들과 같은 찬양을 드리겠다고 하니 더 열심히 하리라고 다짐했습니다.

여러 교회집회 중에 한족교회에 대한 집회도 두 세 곳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선족에 비해 더 순진하고 열성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중국말 찬송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여 충분히 알아들을 수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순간 '아멘', '아멘' 하는 모습과 기자재 철수할 때에 하나의 짐이라도 더 들어 주려 하시는 모습을 보면 한국교인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깨달음과 배울 점들을 보게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Calvary Story

## 장애인전도팀 감상

### 장애인전도를 하면서...

박지연 (서울 충만교회, 행정간사, 장애인전도팀원)



우리 장애인팀은 격주로 월요일 오후 시간에 전도를 한다. 성경을 가르쳐 주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해 그들에게 영적인 감동과 감화를 끼치고 성장을 도와 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들 가운데는 자폐증 세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어린이가 있다. 그 아이 때문에 장애인 식구들과 이웃의 사람들은 항상 신경써서 돌보아 주어야만 하기에 긴장해 있곤 한다. 그리고 소경 한 분이 그 아이를 돌보면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기에 일일이 씻겨주고 옷도 갈아 입혀주는 일을 하고 있다.

자신의 몸도 가누기 힘들텐데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못한 처지의 어린이

를 돌보느라 지치고 힘들 때 쉽게 원망하고 포기하고 싶어한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감당하도록 권면하면 더욱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요즘은 도움의 손길도 많이 줄어서 장애인 집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은 밤낮으로 뛰어 다니시면서 원생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신다. 따라서 낮에는 항상 일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과 장애인들끼리만 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찾아가서 말동무도 해주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 할 때 그렇게 좋아하면서 우리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곤 한다.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성경을 배우면서 감동을 받고 성경대로 지키겠다고 결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보람되는 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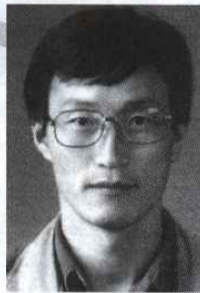
그들과 비교해서 볼 때 나는 이렇게 자유로운데도 하나님께 더 많은 열매를 맺혀 드리지 못하니 더 분발해야 하겠다는 생각과 더 나아가서 장애인들을 대하는 것이니 만큼 더 큰 능력도 받아서 그들의 영적인 육적인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 경찰서 유치장전도팀 감상

### 유치장전도를 하면서...

김철우

(서울 충만교회, 차량 & 기자재 간사, 서울 유치장전도팀원)



유치장 전도를 한 지 5년째 횡수를 넘어가고 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유치장 전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다. 난 유치장 전도에 임하기 전 날 목사님께서 복음을 설명하신 녹화테이프를 유심히 살펴보고 전도폭발 교제를 보며 혼자서 연습을 하였다. 복음을 전할 때 내 입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 막상 유치장을 앞에 두고 준비찬송을 할 때 가슴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떨리는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제대로 전할지 걱정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 "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떨리던 마음이 점차 가다듬어 지고 복음의 내용들이 하나 하나 기억이 나고 계속적으로 입을 열 수가 있었다. 목소리에는 차츰 힘이 들어가게 되고 떨리던 나 자신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에는 비할 수는 없었지만 나 자신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유치장을 전도 할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편청을 하던가 머리를 꼭 파묻고 고개를 들지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무릎 꿇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더욱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결심 기도를 인도 할 수 있었다.

또한 마치고 돌아 갈 때 고맙다고 잘가라는 인사를 받을 때는 정말 가슴이 뿌듯함을 느꼈다. 유치장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 유치장에 들어온 것이 아니지만 그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귀한 사명으로 알고 더욱 더 열심히 임해야겠다.

## News Line

- **진학** - 원종석 단원(서울 충만교회, 서울팀)이 단국대, 한상훈 단원(서울 새한교회, 서울팀)이 한양대에 입학하였다.
- **졸업** - 2001년 2월에 서울 현대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원종석, 한상훈 단원과 서울 경북여자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김아영 단원이 졸업을 했다.
- **입대** - 그동안 특별전도팀의 기자재 간사로서 또한 유치장전도팀에서 충성스럽게 사역했던 김현철 단원(서울 충만교회, 서울팀)이 육군에 입대하였다.

- **새후원회원** - 김민숙, 오영철 - 제19차 국내순회전도시 만난 성도로서 물질로 후원하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하였다.
- **안호기** - 제19차 국내순회전도시 만난 군인으로서 군복무를 하면서 물질로 후원하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하였다.
- **주소변경** - 김승석단장(서울 충만교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은마APT 5동810호. TEL/이전과 동일  
김중석이사(서울 사랑교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11번지 미도APT 210동 502호. TEL/3453-5066

# Calvary People

## ✝ 박지연 간사

선교활동 기간으로는 단원 중 최고참인 박지연 간사는 언제나 다정다감하게 우리를 대해주고 도와주는 자상한 언니가 되어주기도 하고 많은 충고와 질책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는 무서운 선생님이 되기도 한다.

갈보리선교회에서는 모든 집회의 스케줄을 관리하는서무, 행정간사이다. 이곳, 저 곳에서 오는 집회신청을 받아 매주 주일 가장 적절하게 일정들을 세워야 하기에 지혜가 필요한 행정간사의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한 일이니 만큼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이다. 교회에서는 전도폭발반을 이끌어 가

는 전도위원장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전도하는 열정을 갖고 있으며 사무간사로서도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 또한 유년부 책임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러 교사들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퍼우먼이다.

박지연 간사는 개인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와 시험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동안 기도하며 사탄과 싸우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인다. 때로는 실패로 상처받고, 오랜 싸움에 지치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곳곳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디어 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인다. 아마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큰 상급과 능력을 받아 더 멋지게 쓰임 받으리라 확신한다. <편집실>



## ✝ 김정은 간사

갈보리선교회에서 워십댄싱간사와 의상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은 간사는 오랫동안 몸담고 봉사하는 단원 중의 한 사람이다. 워십댄싱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무용에 대한 은사를 주셔서 실제로 집회를 할 때에는 무언가 남다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나 항상 형통한 것 만은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앓고 있는 병이 있어서 이름도 모를 증상으로 어려움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눈이 실명되는 위기까지도 겪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또한 열심히 전도하며 헌신봉사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는 체험도 하게 되었고 지금은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김정은 간사는 회사원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에 휴가를 내야만 순회전도에 동참할 수가 있다. 회사에서 중국연수를 가야 하는 일정과 순회전도를 동참하는 일정이 겹치게 되어서 둘 중의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직장생활에서 손해 볼 것을 알면서도 결국 순회전도에 동참하도록 결정하였고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직장동료와 상사들을 보내고 자신은 순회전도에 동참하였다. 인간적인 것을 손해봐가면서도 주님을 전하겠다는 의지와 결단력은 우리 단원들에게도 좋은 본을 보여주었고 더 나아가 전도자의 참모습을 머리에 그리게 해 주었다. 김정은 간사의 앞날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계속해서 함께 하시길 바란다. <편집실>

## 갈보리선교회가 하는 일

### 국내 사역

1. 경찰서 유치장 전도/ 토요일 오전 또는 오후 시간에 격주로 경찰서 유치장을 방문하여 찬양, 워십댄싱, 간증, 말씀, 간식 등으로 전도하는 사역. 현재는 서울에서 2개팀, 대전에서 1개팀이 사역중임.
2. 장애인 전도/ 월요일에 격주로 정해진 장애인 수용처를 방문하여 청소, 빨래, 목욕시키기 등 봉사와 기초성경공부, 사랑의 교제 등으로 전도하는 사역. 서울에서 1개팀이 사역중임.
3. 특별전도팀 전도/ 군부대, 중, 고, 대학교,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등 특수기관 또는 교회와 지방 순회전도를 위해 워십댄싱, 드라마, 판토마임, 말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훈련, 조직된 팀으로 평상시에는 모든 공휴일과 매주 일 오후 시간에 사역하고 여름, 겨울방학 기간 중에는 지방 순회전도를 함. 공휴일에는 주로 낮과 밤 2회에 걸쳐 군부대 전도집회를 하고 순회전도시에는 낮에는 각종 기관에서, 밤에는 각 교회에서 전도집회를 함.

### 해외 사역

1. 특별전도팀 해외순회전도/ 여름, 겨울 방학기간 중에 각국 현지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2-3주간 동안 각국 현지인들과 교포들을 대상으로 순회전도 함. 지금까지 12개국에서 사역하였고,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음. 해외순회전도시에는 현지 언어로 모든 것을 수행함
2. 선교사 양성 및 해외선교사 지원/ 선교사 후보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일과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를 지원하는 사역. 현재 일본, 필리핀, 타이완, 중국 등 5명의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음.

## 단원 훈련사역

1. 정기모임 훈련 - 매주 수요일 저녁은 본부교회(서울 충만교회)에 모여서 수요기도회로 모여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며 모든 회원들의 영적 성숙과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온 힘을 쏟고 있음. 하절기에는 7시30분, 동절기에는 7시에 모임을 가지며 기도회 후에 단원생일이나 신입단원 환영식 등의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후에 사역실무를 위한 훈련과 연습에 들어감. 현재 갖추고 있는 A,B,C 프로그램은 찬양곡과 율동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원들은 연습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라는 인식 속에서 정성스레 훈련에 임하고 있음. 또한 드라마 및 판타마임을 위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해 내기 위한 연습들을 하고 있음.
2. 제자훈련모임 - 영적, 인격적, 생활 등 그리스도의 일군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한 일환으로 본부교회에 매주 토요일(오후4시30분)에 모여서 보다 세심한 훈련을 2001년도 2월부터 시작했음. 세계복음화의 선봉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전사들이 되게하는 이 훈련을 위해 모든 회원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합 숙 훈 련 - 7월과 12월, 1월에는 국내외 순회전도를 대비하여 합숙하며 훈련함.

# Missionary Report

## 김을룡 선교사(북방)

목사님께 긴급히 기도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곳 사역도 목사님의 기도 덕분에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된 자들을 위한 사역은 점차 인정을 받아가며 현지인과 정부, 특히 현지 교회의 기대를 모으며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저의 사역이 늘 목사님의 기도 덕분에 열매를 거두고 있음을 기억하시어 아래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소수민족 지역에 미전도 종족을 위한 전략이 확정되었기에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미전도 종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묘족 이족 하니족 따이족 족 위글족 회족 몽골족 조 선족을 가슴에 품고 무릎 꿇기를 8년 주님은 이제 열매를 거두어 주시고 계십니다. 복음에 빛진 자 되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부에서는 "왜 일을 많이 벌려놓는가"라고 비난하지만 전문인이 아니면 일하기 힘든 중국사역이기에 지금 일하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

지 사역비가 없어서 고민 할 때도 사역을 확장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방법 대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십시오. 이 땅에 복음의 편안함이 이뤄지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



### ◆ 기도지원

1. 장애인기술훈련센터가 장애인들의 기술훈련 뿐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전도하며 신앙인으로 성장시키는 복음의 센터가 되도록
2. 빌립성경학교 개원과 협력 현지교회 내지선교를 위해
3. 안디옥선교훈련원이 지혜롭게 개원, 운영될 수 있도록
4. 종족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도록

## 박창은 선교사(필리핀)

좋은 것으로 저희들의 소원을 만족케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김목사님과 갈보리선교단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그 동안도 모두들 평안하리라 믿습니다. 저 또한 주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새 의미를 부여했던 2000년은 저에게도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한 해였음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선교 동역자 모든 분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6월에 제일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를 주님께서 현당케 하시고 제일 선한 사마리아인교회도 거의 완공되어 12월 10일 현당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일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 악한 영의 방해세력에 의해 3번씩이나 중단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음확장을 열망하시는 주님의 강한 힘은 모든 것을 능히 이루게 하시어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전건축완공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악한 영의 방해세력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의 길을 가로막을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일 선한 사마리아인교회 복음의 방주를 출항시켜 주신 주님께서 일년도 채 안된 어제 주일예배에 (11월26일) 156명을 승선시켜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방주에 승선한 모두가 소망의 나라로 낙오자 없이 인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일, 제일 사마리아인 교회 모두 Tala(탈라)안에 있으며 제일교회는 산니시드로 마을에 속했고 제일교회는 콘셉션 마을에 속해 있습니다. 주일예배는 제일, 제일교회 예배시간 차이를 두어 인도할 예정입니다. 제일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 내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은 주님의 은혜 속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교원 원아들과 두분 교사들의 영적 충만함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과 평화의 종소리가 온 세계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탄생을 맞아 김목사님과 갈보리선교단위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며 새해의 모든 바램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기도와 사랑으로 저의 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되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의 가슴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